

## 해 돋는 동방나라, 땅끝 땅모퉁이에 숨겨놓은 선민

이사야 41장 1~9절

삼손이 활약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이 올드 네게브(Old Negev)어를 사용하였으리라는 증거가 나왔다. 블레셋 군대와 2백여 년간 전쟁을 벌여왔던 단지파 민족은 삼손 장수를 잃자마자 가나안 소라성읍에서 출발하여 동으로 이주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의 일이다. 단지파가 한반도 대동강변에 와서 고조선의 세웠는데, 그 당시 사용한 기와장에 새긴 꽃무늬 같은 문양이 이스라엘의 네게브와 라기스, 벤세메스, 여부스 등 남방지역에서 발견되는 올드 네게브(Old Negev) 문자와 똑같은 문자로 확인되었다. - 본지 8면에 '외당 특집' 참조



'모세의 출애굽'을 표현한 시나이 암각화에 올드네게브 문자(원시가나안어)가 새겨져 있다. 사진출처: 논문 「대동강변 출토 히브리 문양 외당과 시나이산(Mt. Sinai) 암각화 문양 비교」에서

### 대동강변 출토 외당에 새겨진 문자는 원시 히브리어(Proto-Hebrew)다

한국의 최초 국가인 고조선은 약 3200년 전에 삼손 장수 사망 직후 이스라엘 소라성읍에서 이주해온 단지파 민족이 세운 국가이고, 그들은 대동강 유역에 도착하여 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천제단(天祭壇)을 쌓았고, 그 제단의 출입문 상단 지붕에 쌓은 기와에 원형 외당을 사용하였는데, 그 원형 수막새에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를 새겨 넣었다.

알마 전까지만 해도 이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조차도 자신들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몰랐으며, 또한 모세시대(the period of Moses)와 사사시대(the period of judges)에도 어떤 문자를 사용했는지 알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 히브리어(Ancient Hebrew)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 때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금세기에 들어서 모세가 하

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기록된 십계명 석판을 건네받은 곳이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 코스 중 하나인 시나이반도 시나이산(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미디안 땅)에 있는 라오즈산(Mt. Lawz)이 진짜 시나이산(Mt. Sinai)임이 밝혀졌다.

그러하여 라오즈산(또는 아몬드산Mt. Almond) 주변의 암각화(위의 사진 참조)에서 발견되는 문자를 일찍이 원시타무딕(Proto-Thamudic) 문자라고 명명했지만 어느 민족이 사용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원시타무딕 문자가 모세 시대(the period of Moses)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올드네게브 문자이며 또한 그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네게브 사막(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살면서 사용한 원시가나안어(Proto-Canaanite)와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는 아브라함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브리검 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 제임스 해리스(James R.Harris) 교수는 고대 문헌연구와 고고학적인 탐사를 통해 성서(聖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야웨' 이름을 올드네게브 문

자(BC1,200년)보다 훨씬 앞서서 고대 시나이반도와 고대 가나안지역의 암각화에서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로 확인된 고대 시나이반도의 문자를 '원시 시나이문자(Proto-Sinaitic)'로, 또 고대 가나안지역의 문자를 '원시 가나안문자(Proto-Canaanite)'라고 명명하였다.

기원전 2,000년경 원시 가나안문자(Proto-Canaanite)가 올드네게브 문자의 모태인 까닭은, 아마도 저 멀리 우르에서 이주해온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는 집안 사람들이 가나안 남단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야웨'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문자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창 21:31). 더 나아가 노아의 장자 셈이 아브라함 150세 되는 해까지 살다가 600세에 임종한 것을 염두한다면,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사용한 언어는 노아홍수 이전 시대의 언어와 매우 가까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 올드네게브 문자가 일부 합자(合字)로 표현되는 특징은 초성·중성·종성으로 조합된 한글과 닮았다

올드네게브(Old Negev)의 합자어(合字語)에 익숙한 단지파 민족이 동쪽으로 이

동 중 알타이산맥에서 우거할 때 북쪽 시베리아별관으로 동쪽 몽골평원 또는 중국 섬서성 기산으로 분파되어 나갔는데, 특히 중국에서 주나라를 세운 단지파는 올드네게브의 합자어 형태를 본 뜬 한자어를 창제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단지파의 주류가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에 정착한 지 약 1,500년이 지나서 한글이 창제되었는데, 한글 또한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 합자어 형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로 유입되거나 계속해서 동으로 이동한 단지파는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이 되었는데(순성대 교수의 책 『한민족의 기원』 참조), 유태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물론교는 이스라엘의 고대인들이 미국에 정착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단지파 사람임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동일한 풍습

승리제단 조희성 총재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다섯 번째 아들 '단'이 한민족의 시조 '단군(檀君)'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족(原族)이라는 여러 증거 가운데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당시 양(羊)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액(厄)을 면했다(레위기24:6)고 해서 유월절(the Passover) 풍습으로 대대로 지켜오고 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민족 가운데 단민족이 이스라엘 소라성읍에서 동쪽으로 이주하여 한반도에 와보니 양이 없으므로 양의 피 색깔과 비슷한 팔죽을 쫓아서 동짓날에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유월절 풍습이 변모된 것이다.\* 백태선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06>  
“이 역사는 만세 전에 예정된 역사”

이 역사가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만세 전에 예정된 역사로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이다. 전지전능을 행사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의 불치병을 고쳐주면 그 능력을 믿겠다고 한다.

이곳은 바로 영적인 목욕탕이다. 그런데 목욕탕엔 들어오지도 않고 때를 밀어 달라고 역지를 쓰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바로 영적 목욕탕인 이곳에 와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유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전지전능이 발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긴말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되면 안 죽는다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 행복한 노년 준비

##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혀

혀를 알면 내 몸을 알 수 있습니다. 혀는 입안에 있는 길쭉한 모양의 근육입니다. 구강 바닥에서 입안으로 튀어나온 형태이며, 맛을 느끼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입의 기능에 기여합니다. 또한 언어의 발음에도 중요한 신체기관입니다. 표면은 점막으로 덮여 있고, 전체를 혀뿌리, 혀몸통, 혀끝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 혀는 강력한 근육 중 하나

혀는 근육 덩어리로서 바깥근육과 속근육으로 이루어집니다. 바깥근육은 혀가 움직이고, 혀의 모양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고, 속근육은 입속 물질을 삼키고 말을 할 때 혀가 알맞은 모양을 취하도록 변화시킵니다. 혀 밑의 중앙에는 혀주름띠(설소대)가 있으며, 혀의 뿌리는 분계구(terminal sulcus)의 뒤에 있으며 목뿔뼈(설골)에 부착되고, 후두덮개(후두개)에 연결됩니다. 혀의 길이는 구인두에서 혀끝까지 평균 10cm 정도입니다.

혀의 입천장 쪽 면(혀등)과 옆가장자리(혀모서리)에는 수많은 혀유두가 있습니다. 혀유두(설유두)는 가느다란 모양의 점막돌기이며, 혀등에 널리 분포해 있는 것은 실처럼 생긴 유두(약 0.5mm, 실유두, 사상유두)입니다. 또 혀 끝에는 버섯유두, 혀 가장자리의 뒤쪽에는 잎새유두가 있고, 분계구의 앞쪽에는 이 흠을 따라 혹 모양의 유곽유두가 10개 정도 배열해 있습니다. 유두에는 맛 자극을 느끼는 신경의 말단이 있는 맛봉오리(미뢰)가 있습니다. 혀뿌리에는 림프구가 밀집한 림프절이 혹 모양으로 융기해 있는데, 이것을 혀편도라고 합니다.

혀는 음식을 섭취하여 씹는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래턱의 운동과 치아의 작용, 그리고 볼, 입술과 혀의 함께 작용하여 음식을 씹고 씹고 골고루 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식을 삼킬 때도 혀가 기능을 하는데, 혀는 입안을 채우면서 음식을 인두로 넘깁니다. 둘째는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미각). 혀 유두에는 미각신경의 말초기관인 맛봉오리(미뢰, taste bud)가 있으며, 음식물 중 침에 녹은 물질이 맛봉오리를 자극해서 생기는 감각을 미각(taste)이라고 합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등인데, 대개 단맛은 혀의 끝부분, 쓴맛은 혀의 뿌리 부분, 신맛은 혀의 옆구리 부분, 짠맛은 혀끝과 혀의 옆구리 부분에서 느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경계가 해부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마지막은 구음작용입니다. 입 안에서 소리를 만드는 작용에서 입과 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모음에서는 구강이 공명강이 되어 음색을 주고, 자음에서는 혀 연구개 입술 볼 등이 함께 움직여서 입안에 좁아지는 부분이 형성되면서 각각 다르게 발음됩니다.

제맛은 것은 심장과 턱 근육과 함께, 인체에 있는 수많은 근육 중에 크기(굵기) 대비 가장 강력한 근육 중 하나가 혀입니다. 보통 인간의 혀를 보면 아무리 길어도 9~10cm 정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목 뒤까지의 길이를 합하면 30cm 정도에 육박하며 목에서 시작된 8개의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혀의 색깔로 건강 기능할 수 있어

옛날 내시경이 없던 시절, 내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혀바닥을 봤습니다. 지금도 한의학에선 '설진'이라 하여 환자의 혀를 보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진단법을 행합니다. 혀의 형태, 색깔, 특정 부위의 흠을 통해 질병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의 혀는 '선홍빛'을 띠니다. 혀에 붉은기가 적다면 빈혈이나 저혈압을 의심해볼 수 있고, '창백한 흰색'의 혀를 지닌 사람들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혀가 지나치게 빨간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몸의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한 곳에 정체되는 '어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혀의 색이 까무잡잡하다면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한 혀는 호흡기와 순환기 계통의 건강 문제를 암시하고, 여성의 월경이 순조롭지 않을 때에도 혀가 보라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관이 그러하듯이 혀의 건물 중 침에 녹은 물질이 맛봉오리를 자극해서 생기는 감각을 미각(taste)이라고 합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단맛, 쓴맛,

김주희 기자



원편의 사진은 원시 히브리어(Proto-Hebrew)에 해당하는 올드네게브(Old Negev) 문자가 새겨진 4종류의 외당(12지파 외당①, 꽃무늬 외당②③④⑤⑥, 단Dan의 독수리 외당⑦⑧⑨, 오얏화 외당⑩⑪⑫)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동종(同種)의 외당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 ① 일본 테츠카야마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 ② 일본 테츠카야마대학 소장
- ③ 일본 테츠카야마대학 소장
- ④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 ⑤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양 강남구 원암리(源巖里), 소장기관: 동경 국립박물관 소장
- ⑥ 출토지역: 한반도 북부, 동경 국립박물관 소

- 장
- ⑦ 일본 사이타마 대학 소장
- ⑧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 대동강면(大同江面) 토성리(土城里) 토성(土城), 소장기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번호: 본관(本館)-008464-003
- ⑨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01385-000
- ⑩ 일본 테츠카야마대학 부속 박물관 소장
- ⑪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소장, 유물번호 301429-000
- ⑫ 시대: 고조선, 출토지역: 평양 대동강 유역, 소장기관: 국립광주박물관, 유물번호: 본8464(구 215)\*

## 정도령이 면절대로 풀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 격암유록신해설 상·하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류의 미래 불안!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리라!!!!

구세주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